



## 8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1년 8월 예금취급기관<sup>1)</sup> 가계대출 증가액이 7월 4조 4,000억 원에서 8월 5조 원으로 6,000억 원 늘어났으며, 이는 2011년 상반기 평균 증가액인 3조 6,500억 원 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임.

-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 2조 2,000억 원에서 8월 2조 5,000억 원으로 3,000억 원 증가함.
  -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경우 1조 9,000억 원에서 1조 1,000억 원으로 8,000억 원 감소한 반면, 기타대출의 경우 3,000억 원에서 1조 4,000억 원으로 1조 1,000억 원이나 증가함.
-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 2조 1,000억 원에서 8월 2조 5,000억 원으로 4,000억 원 증가함.
  -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이 7월 1조 원에서 8월 1조 7,000억 원으로 7,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.
-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7월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으며, 이는 비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.
  - 수도권의 경우 7월 2조 3,000억 원에서 8월 2조 5,000억 원으로 2,000억 원 증가한 반면, 비수도권의 경우 2조 원에서 2조 5,000억 원으로 5,000억 원 늘어남.

■ 일부 전문가들은 8월 가계대출 증가액 확대가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분석하는 한편, 「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」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.

- 은행권 가계대출 기준 강화 및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의 영향으로 휴가철 여유자금 부족이 마이너스통장 등의 기타대출 확대를 통하여 나타난 것으로 분석함.
- 9월부터 6월 29일에 발표된 「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」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전망함.

(2011년 8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, 한은, 10/18)

1)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(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상호금융, 신탁 및 우체국예금 계정)임.